

“광주공항 제주·김포노선 무안으로 옮기면 무안공항 2020년 연 237만명 18배 증가”

광전연 토론회서 김연명 항공교통연구본부장 제기

무안국제공항이 광주공항의 김포·제주 등 국내선을 유치할 경우 국내선 수요가 현재 개별 운송 시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30일 광주전남연구원이 주최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전략 제2차 대토론회’에서 김연명 항공교통연구본부장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광주 공군항 및 국내선 이전방안’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이 자료에서 김 본부장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의 연도별 무안공항 국내선 시나리오별 전망

을 토대로 무안공항의 거점공항으로의 역할 가능성 여부를 판단했다.

자료에 따르면 광주공항이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한 후 제주·김포 노선이 100% 무안공항에 유지될 경우 2020년 무안공항의 국내선 수요는 연간 237만3000명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절반이 유지되면 212만7000명으로 추정됐다.

지난해말 광주공항·무안공항 국내선 탑승인원이 각각 160만5000명, 12만9000명 등 모두 173만4000명이었던 점을 감

안하면 무안공항의 국내선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2035년 제주·김포노선이 50%가 유지된다면 244만명으로, 광주공항의 국내선 수요 245만명과 거의 같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5차 공항개발계획에 따라 무안공항을 서남권의 중심 공항으로 활용하고,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 추진해야 한다”며 “추진 시기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 간 긴밀한 합의 여부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따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먼

저 광주송정역에 무안공항 탑승 수속이 가능하고 공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광주송정역 도심공항 터미널 확대’를 제안했다.

또 “2014년부터 티웨이항공의 대만, 중국 노선 투입 등 무안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O)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의 에어시티 사업 및 김포공항의 항공 복합 공공지원 시설 개발 추진 등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복합 공항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혼용용 비행장 사용 등도 함께 주장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공항의 제주·김포행 노선이 전남 무안공항으로 모두 옮겨가면 오는 2020년 무안공항 국내선 수요가 현재의 18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무안공항 전경

광주 과태료 등 세외수입 미수액 1000억 육박

시·5개 자치구별 징수율·미수액 차이 커

지난해 체납액 1101억 중 134억 징수 그쳐

광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 등 세외수입 가운데 미수액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 말까지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 1101억6000만원 중 134억1000만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결손액(4억7000만원)을 빼면 975억2000여만원이 미수액으로 남았다.

미수액은 광산구(275억5000만원)가 가장 많았고, 이어 북구(183억3000만원), 서구(178억4000만원), 남구(135억1000만원) 순이다.

4개 자치구는 시(121억9000만원)보다 많았으며 동구는 81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세외수입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과태료의 경우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까지 239

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이 중 138억8000만원(58.1%)만 징수돼 올해 미수액이 100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자치단체들은 과태료 중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주·정차 위반, 자동차 검사 지연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139억2000만원을 부과해 56.2%인 78억3000만원을 거둬들였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자치구별 징수율은 48~62%를 기록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의 부과액과 징수율은 이보다 큰 차이를 보여 자치구별 단속·

징수 의지를 엿보게 했다.

지역 주택조합의 불법 현수막이 난무해 옥외광고물 부과액이 많이 늘어난 가운데 광산구와 북구가 각각 24억5000만원, 23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남구는 10억원, 서구는 7억7000만원, 동구는 부과액이 1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징수율은 동구 88.4%, 서구 72.3%, 북구 59.4%, 광산구 43.4%, 남구 17.7% 등으로 부과액 순위와 달랐다. 광주시는 지난해 29일 자치구 관계자들과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이월 체납액 1101억6000만원의 20%가량인 220억원을 징수 목표로 정했다. 7월 말 현재 목표액의 60.9%를 거둬들였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인도 마힌드라 그룹 전기차 협력 협의

윤시장·딜립 순다람 사장 면담

윤정현 광주시장은 30일 오후 서울에서 마힌드라 코리아 딜립 순다람 사장을 만나 전기차 등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마힌드라 그룹은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 진출해 있는 인도의 다국적 기업으로, 지난 2010년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기도 했다.

그를 내 마힌드라&마힌드라는 SUV, MUV, 트럭, 세단, 트랙터, 전기자동차, 2·3륜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인도 최대 자동차 회사다.

이날 만남은 지난 3월 마힌드라 코리아 딜립 순다람 사장이 광주를 방문해 상호 관심사를 논의한 이후 두번째다.

윤 시장은 이날 “지난 7월 광주시의 대형 국책사업인 ‘자동차 100만대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관련 산업기반을 조성 할 여건이 마련됐

다”면서 “자동차산업은 안정적인 노사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딜립 순다람 사장은 “마힌드라는 친환경 기업이고, 세계적인 관심사인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에 당연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올해 자국에서 전기자동차 세단을 생산 판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9월중 한국 방문 일정이 있는 고엔카 사장과의 면담은 향후 실무진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시는 핵심 프로젝트인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 성공을 위해 국내외 기업들과 접촉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수산기자재산업 클러스터 목표에 조성될 듯

전남도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용역보고회

전남도가 추진중인 해양수산융복합벨트 조성사업의 핵심거점인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클러스터가 목표 수산종합지원단지 및 수산기자재기업이 입주 예정인 대양산단 인근에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재클러스터는 해양수산기자재 유통시설을 집적화함으로써 전국 수산물 시장의 절반을 생산하는 전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초기지가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30일 ‘국립 김산산업연구소’ 설립과 ‘국립 수산기자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발굴기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갑섭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대학 교수, 시·군, 관련 기관·단

체, 용역업체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동주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보고에 이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동주 연구위원은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립 김 산업연구소’의 설립 필요성과 운영 방안,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계획, 컨트랙 타워 설립과 ‘국립 수산기자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발발기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우리 나라 김 산업은 1조3000억원 규모로 인산산업과 그 규모 면에서 비슷하지만, 전문 연구기관은 없는 실정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제2순환도로 전 구간 ‘하이패스’ 개통

내달 1일 소태영업소 운영

광주 제2순환도로 모든 구간에 하이패스가 개통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제2순환도로 송암·유덕영업소에 이어 오는 9월1일 소태영업소의 하이패스도 개통된다. 이번에 개통되는 소태영업소 하이패스는 상·하행 각 2차로씩 운영되며 학운IC 무등산 진출·입 구간에 대해 별도의 전용차로를 확보한다.

하이패스 차로는 고속도로용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현금 징수 차로에 선불교통카드 결제기능도 도입돼 하이패스, 교통카드, 현금징수로

원활한 교통 흐름과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앞서 개통한 송암·유덕영업소 하이패스 운영 결과, 통과 차량의 55% 이상이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로 인한 통행 불편이 해소돼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하이패스 전 구간 개통으로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외지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행량이 늘어 시의 재정 절감 효과도 거둘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2년
1954~2016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수시	정시	수시	정시
인문	신 학 과	40	1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4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8	1	
	유아교육과	19	1	
예능	음악 학 과	10	5	
	실용음악학과	17	1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6. 9. 12(월) ~ 21(수) • 전형일 : 2016. 9. 30(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6. 12. 31(토) ~ 2017. 1. 4(수) • 전형일 : 2017. 1. 12(목)

대 학 원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지원자로서 신학관련 학과만 해당됨)

① 원서접수 : 2016. 10. 25(화) ~ 11. 1(화)
② 전 형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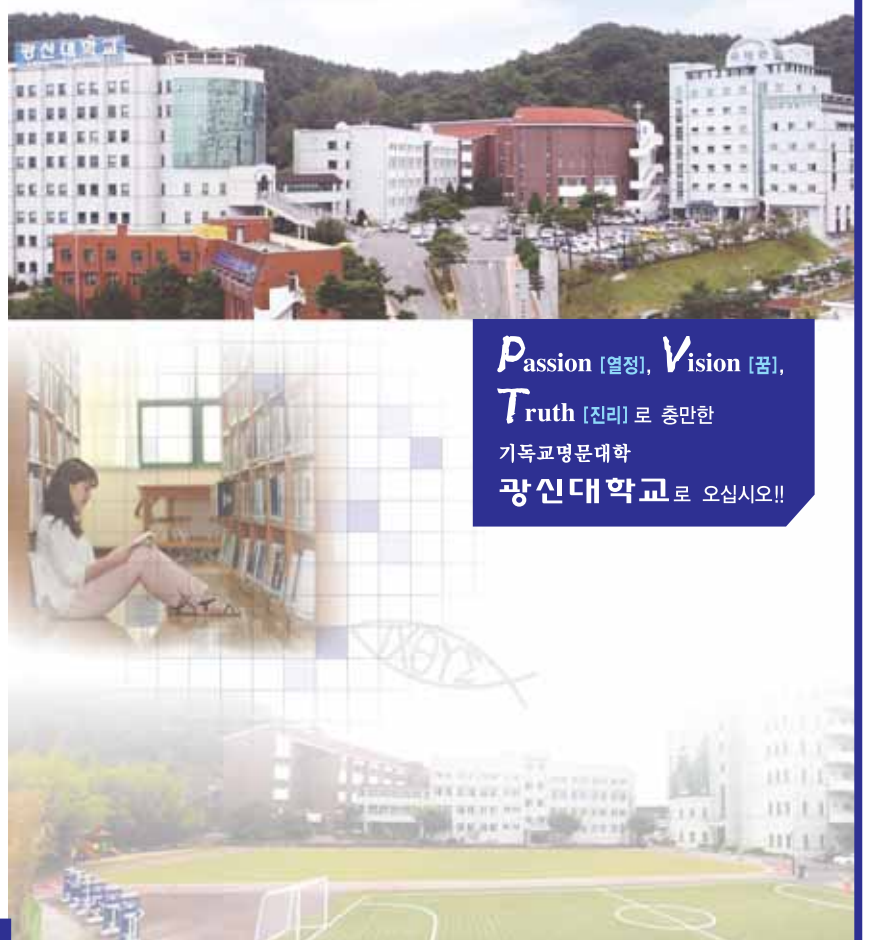
대 학 원	과 경	모 집 학 과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16. 11. 4(금) 오후 3시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6. 10. 25(화) ~ 11. 8(화)
② 전 형 일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 경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2016. 11. 11(금) 오후 2시30분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2016. 11. 11(금) 오전 9시 40분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1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2016. 11. 12(토) 오후 2시40분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통합예술치료학과(M.A.)	10	2016. 11. 12(토) 오후 2시 40분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